

남성스커트에 나타난 성(性)정체성 - 스코틀랜드 킬트를 중심으로 -

이 영 민 · 이 연 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1. 서 론 :

21세기는 과학과 이성, 지식과 정보로 대표되는 세계로, 사회와 삶의 영역들은 근력이나 힘으로 대변되던 남성성의 영역이 점점 축소되고 소프트한 여성성이 확대되어 가는 흐름을 맞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도 변화를 주었으며 남성의 고유영역, 여성의 고유영역에 대한 고정 관념은 이미 허물어졌다. 패션에도 다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남성 패션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으며 스커트를 착용하는 남성들이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역사 속의 남성 스커트와 스코틀랜드의 킬트(kilt)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성의 역할 변화와 남성들이 착용하였던 남성 스커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1960년대 이후부터 현대까지 남성복의 자유를 표현하고자 했던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 등장한 킬트와 남성 스커트의 디자인 사례,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1) 킬트의 역사적 배경

킬트(kilt)는 격자줄무늬 스커트로 리틀랩(little wrap)을 의미하는 게일어(Gaelic Language)에서 유래되어 18세기 초에 생겨났다. 스코틀랜드의 고지대 주민인 하일랜드(Highlander)들의 남성복으로부터 전해졌으며, 원래는 16세기 후반 스코티쉬(Scottish)라는 커다란 랩(wrap) 형태와 허리에 찬 격자무늬의 플레이드(plaid)로부터 변화 발전된 것으로 낮에는 의복으로, 밤에는 이불로도 사용하였다. 킬트는 착용 방법이 다양하며 현대 착용되는 간편한 스타일은 하일랜드의 전통적인 킬트에서 변화된 형태로 영국인 Thomas Rawlinson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킬트는 역사 속에서 폐지 운동을 거처기도 하였지만, 조지 4세(George IV)가 킬트를 착용하고 스코틀랜드를 방문함으로써 킬트가 국가적인 의복이 되도록 촉진시켰으며, 빅토리아 여왕은 킬트를 예찬하여 널리 받아들여지게 만들었다. 오늘날 킬트는 결혼이나 정장 파티, 저녁이나 리셉션 등의 특별한 행사와 같이 가족이나 집단의 모임에서 민족 복식으로 계속 착용되고 있다.

2) 남성스커트의 역사적 배경

[†]교신저자 E-mail : yiyhee@hanyang.ac.kr

스커트는 허리나 엉덩이 주위에 의복의 재료를 감아 싸는 형태로 입은 가장 오래된 의복의 형태이다. 남성스커트는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남성들이 다양한 형태의 드레이퍼리한 스커트를 시초로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튜닉(tunic)이나 키톤(chiton)이라고 불리는 타입도 고대 그리스 남성들의 필수적인 의복중의 하나로 노출된 가슴과 고전적인 드레이퍼리의 조화는 오랜 역사에 걸쳐 유행했던 남성의 권위적인 상징적 이미지였다. 로마 남성의 기본 의복은 튜닉과 토가(toga)였다. 중세시대의 비잔틴 문화부터 중기의 시대까지도 남성들은 여성들과 같이 스커트 형태의 의복을 착용했다. 1320년대 말에 재단법이 등장하여 옷감을 사람의 몸에 맞추어 입기 시작했고 패션 감각이 있는 남성들은 긴 코트를 벗고 몸에 꼭 맞는 짧은 튜닉을 입고 자랑스럽게 다리를 내놓고 다녔다. 로마 군인들처럼 남성들은 다리를 드러내서 자신의 육체적, 성적 힘을 보이길 원했다. 15세기 후반 이래로 남성들은 듀블렛(doublet)이나 푸르프엥(pourpoint)을 입기 시작하였으며 영국의 헨리 8세가 푸르프엥을 입었던 모습은 남성적인 다리와 그의 정력과 힘을 표현하는 남성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세시대의 종교복식에서도 남성들은 모두 스커트를 착용했다.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와서 푸르프엥의 간소화된 모습인 베스트(veste)와 듀블렛 대신에 웨이스트코트(waistcoat)를 입었으며 남자들 신사복 바지의 모체인 단정한 무릎길이의 트루스(trousse)가 등장하였다. 17세기 후반 당시의 패션 리더였던 루이 14세의 모습은 매우 화려했지만, 영국의 청교도들은 검소하게 의복을 착용하였다. 프랑스 혁명기 이후 남성들은 스커트 형태의 의복에서 브리치(breeche)형태의 바지와 관탈롱을 착용하였으며, 이 시기부터 바지는 남성들은 의복으로 인식되었다.

3. 현대 패션에 표현된 킬트

전통적인 성(姓)역할의 변화는 최근 트렌드로 등장한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1990년대 중반 영국의 작가 마크 심슨이 새로운 타입의 남성종족으로 붙여준 용어인 메트로섹슈얼은 세련된 미적 감각과 교양을 지닌 도시 남성을 뜻하며 과거 힘으로 대표되었던 획일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그들을 표현하고 솔직하게 기꺼이 여성스러움을 받아들여려는 열망을 가진 것으로 설명된다. 남성들은 그들의 딱딱한 모습을 벗어버리기 위한 남성 해방을 선언하며 그 자유로운 표현의 예로 구 자본주의 거부장재도 아래 굳어진 여성의 전유물의 상징인 스커트를 착용하기도 한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도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회가 새롭게 자신감을 얻음에 따라 신세대 젊은 층에서도 지난 200년간 성(姓)적으로 굳어진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 킬트의 착용을 주장하게 되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상복으로 티셔츠 또는 스웨터, 데님이나 가죽 재킷, 트레이닝복, 밑바닥이 두껍고 넓은 구두를 신고 발목까지 늘어지는 양모로 된 양말을 신고 킬트를 즐겨 입는다. 이완 맥그리거, 사무엘 잭슨 등의 인기 스타들이 이와 같은 킬트를 입는 젊은 세대로, 배우나 음악가들은 킬트의 착용을 스코틀랜드의 젊은이들에게 촉진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젊은 동성에 남성들이 그들의 성격 취향을 선언하기 위해 양성주의를 표방하는 것을 거부하며 그들의 차별성과 사회에서의 해방을 선언하기 위해 좀 더 전형적으로 남성적인 자기 과시를 찾았을 때, 킬트는 남성들의 초 남성성의 표현으로서 그리고 여성적인 것의 과시를 위해 입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패션 디자이너들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남성성과 섬세한 여성성이 나타나는 패션을 발표하고 남성들의 자유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장 폴 고티에, 로베르또 매니세타, 토마 힐퍼거, 드리스 반 노

든, 요지 야마모토 등은 그들의 컬렉션에서 킬트 스커트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또한 자신이 직접 착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샤넬의 칼 라거펠드도 2005년 컬렉션의 피날레에서 검정 재킷에 빨강 타탄체크의 롱스커트를 입고 등장하였다. 현대 패션에 보여 지는 이러한 남성 스커트는 도덕과 사회 규범을 넘는 수단으로서, 이상적인 남성다움을 다시 정의해보는 수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드리스 반 노튼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것처럼 남성의 스커트와 여성의 스커트 또한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스커트가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벗어나 개성을 표현하는 강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결 론

현대사회는 산업화 정보화와 함께 급격한 사회 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패션에도 다원화 현상과 함께 남성들의 패션에서도 스커트가 여러 디자이너를 통하여 발표되고 착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커트가 생겨난 후부터 전체 역사 속에 남성들이 입었던 스커트와 킬트의 역사적 배경과 스타일, 형태를 살펴보고, 동시에 현대의 디자이너들이 킬트를 현대 디자인에 접목시킨 사례를 찾아 남성스커트에 나타난 성역할 변화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스커트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 오랜 기간동안 남성들은 여성과 같이 스커트를 공유하였다.

킬트는 스코틀랜드의 민족 복식으로 현대까지 전해오는 대표적인 남성 스커트로, 최근 디자이너들은 킬트에서 영감을 받은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을 발표하고 있다. 킬트는 강한 남성성과 스커트가 가지고 있는 여성성을 공유한 의복의 형태이다. 현대의 남성 스커트를 제안하는 디자이너들은 아름답고, 멋있고, 우아함을 표현하기 위해, 단거적인 유행으로 잠시 발표되는 것이 아닌, 미래에는 남성들에게 있어 스커트가 구체적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들의 디자인을 발표하고 있다. 남성들 또한 그들의 남성다움 개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스커트를 착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소영, 양숙희 (2000). "세기말 남성패션에 나타난 표상성." *복식문화연구* 8권 2호.
- 김윤경, 이경희 (2002). "20세기 남성패션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복식* 52권 4호.
- 송미경 (1997). "Scottish 킬트의 형태 변화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국복식학회* 제47호.
- 앤 홀랜더 (1996). *의복과 성(性)*. 채금석 역. 서울: 경춘사.
- 앤서니 기드슨 (2001). *현대 사회학*. 김미숙 외 6인 역. 서울: 을유문화사.
- 이민선 (2001). "남성 패션에 표현된 다중문화." *한국복식학회지* 51권 7호.
- 정혜영, 임영자 (1999). "Tartan 과 스코틀랜드 복식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제35호.
- 정홍숙 (2002).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 채금석 (1999). "현대패션에 나타난 양성적 복식에 관한 연구." *복식* 44권.
- Andrew Bolton (2002). *Bravehearts-Men in skirts* V&A Publications/Abrams.
- Gerda Buxbaum (199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Prestel.